

전기차 대형화재, 전주시가 책임진다

전주시, 행안부 주관 'READY Korea' 훈련 실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 위한 대응체계 점검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최상위 재난대비훈련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이 전주에서 펼쳐졌다.

전주시는 20일 팔복NH아파트와 더메이호텔 등 전주시 일원에서 소방청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전주시는 20일 팔복NH아파트와 더메이호텔 등 전주시 일원에서 소방청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기후 위기와 도시인프라의 노후화 등 잠재적이거나 새로운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최상위 재난대비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를 토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아파트 단지 전체와 인근 호텔까지 확산되고, 주변 지역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규모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훈련은 팔복N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총정 중이던 전기차의 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고, 스프링클러 고장에 따른 미작동으로 인근 차량과 실버까지 연쇄적으로 발화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안부는 복지부, 소방청, 전주시

등 관계기관과의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피해 확대에 대비해 아파트 입주민 대피와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덕진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

조제단'을 가동했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는 EV 드릴렌스(배터리 셀을 뚫고 물을 주입하는 민간개발 특수장비)와 소방용 살수장치, 질식소화장치 등이 사용됐으며, 아파트 입주민의 안강기와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지력 대피도 지원했다.

덕진보건소는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라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사상자의 증증도를 분류한 후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북대병원

과 원광대병원 등도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 응급처치와 이송 등 응급의료소 운영을 지원했다.

소방당국은 1차 진압이 완료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를 핸드 트레일러와 견인차를 이용해 지상으로 이동시키고, 무인파괴방수차와 이동식 수화수조를 활용하여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파트와 호텔의 고층 고립되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로, 옥상 대피자는 헬기로 각각 구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훈련을 통해 아파트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관별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면서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평상시에도 굳건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드는 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재(人災) 없는 전주시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동물원, 환경부장관 표창

'2024 카자 어워드'서 최우수기관 선정... 동물복지 구현 '인정'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한 전주동물원이 동물복지를 가장 잘 구현한 동물원으로 평가됐다.

전주동물원은 국내 14개 동물원·수족관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가 주관한 '2024 카자 어워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은 그동안 △동물복지 개선 위해 생태환경 조성 △동물이 행복한 활동을 위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운영 △경관강화 프로그램 운영 △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메디컬 프로그램 운영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다양성 보전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로써 전주동물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해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주동물원은 앞으로도 △세계 주요



동물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연과 유사한 서식 환경 조성 및 전시 환경 개선 추진 △다양한 동물복지 프로그램 강화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태다양성 위기 시대에 종 보전 대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김중대 전주동물원장은 "이번 수상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서 "관람객들을 위한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에 적합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완산소방서, 수난인명구조 훈련 실시

완주 구이전수지 일원서



것이 중요하다. 안전하다고 판단 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얼음의 이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중할 수 있으니 즉시 얼음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얼음이 겹보기에는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쉽게 깨질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호수나 저수지 등의 얼음 위에는 출입을 자제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20일 완주군 구이전수지 일원에서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원의 수난구조기법 및 장비 숙달을 통하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수난구조장비 점검 ▲수중탐색기법 훈련 ▲수중인명구조 훈련 ▲수중탐색장비 사용 훈련 ▲익수자 응급처치 실습 ▲구조, 구급대원 팀워크 훈련 등이다.

또한 겨울철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얼음 위에서 발판놀이, 낚시 등을 자제하고, 얼음판 진입 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을 확인하는

K-water, 자원봉사단에 400만원 기탁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 '금강유역본부에 깊은 감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김장준)는 20일, 겨울철 맞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회장 이성희)에 성금 4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된 성금 400만 원은 취약계층이 든든한 겨울날 수 있도록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쓰여, 덕진구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 거동불편 세대 등 저소득 소외계층 180여 세대에 전달됐다.

이날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성금 전달뿐만 아니라 직접 김장을 담그는 등 자원봉사 활동도 같이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장준 K-water 금강유역본부장은 "지역사회를 살리고,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누며 이웃들과 공감

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이성희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 회장은 "모아 주신 성금 400만원의 후원으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사랑의올타리 봉사단의 봉사활동을 응원해 준 K-water 금강유역본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보내준 K-water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사회복지공무원들 '집시일반'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함께라면' 사업 위한 성금 321만원 기탁

전주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모임인 전주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20일 전주시에서 고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 '함께라면' 사업 성금 321만원을 기탁했다.

전주 '함께라면'은 대중적 음식인 라면을 누구나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카페를 운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고립위기가구를 찾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시 대표 복지사업이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전주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 행복한 전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집시일반미련한 것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현옥 회장은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고독사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전주함께라면과 같은 참신한 복지사업발굴,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어려운 고립 문제를 반드시 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일선 복지 현장에서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전주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모임인 전주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20일 전주시에서 고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 '함께라면' 사업 성금 321만원을 기탁했다.

애써주시는 전주사회복지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고립가구 예방에서부터 발굴, 지원과 사후관리 등 다양하고 촘촘한 접근으로 더 이상 고독사나 고립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는 복지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전주시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공무원 321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각종 업무 연찬 및 교육, 회원 힐링 사업,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야